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노동 대처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The disabled homemakers' Copping Strategies on Housework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채 옥 회
원광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정 은 미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 Chae, Ock-Hi
Dept. of Home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eong, Eun-Mi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egrees of housework share, the usage of kitchen equipments, the adjustments of residence, and community service to understand difficulties on housework that disabled homemakers can have, and to present possible coping strategies for homelife improvement of disabled homemak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Main difficulties are that the disabled homemakers feel when performing housework are the preparation of meals, doing dishes, doing laundry, cleaning up etc, which are the essential parts of one's homelife. 2) The result shows that having a rice cooker, a refrigerator, and a stove is a necessity for the disabled homemakers and that the degree of usage is pretty high. 3) Most of the disabled homemakers lack basic adjustments for the disabled in their residence such as the adjustments of the height of shelves. 4)

*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nsidering that they do not recognize community service for them, and most of them are not covered by any service, we can conclude that community service for disabled homemakers is not run enough.

◆ key word: 가사노동

I. 서론

현대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으나, 기계적·물리적인 사고와 산업재해, 공해 등은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2월 현재 전국 장애인은 약 1,101천명으로 1990년에 비하면 145천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확대장애 범주를 포함하면 약 1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http://www.mohw.go.kr>). 즉 전체 인구에 기초한 장애인 출현율은 1995년 2.35%로 1990년에 비해 0.1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영국과 미국의 14%, 네덜란드의 9.9%, UN이 정한 1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는 과거와 달리 선천적 원인(5.3%)보다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88.1%)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인들 역시 “자신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74.3%)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경제신문, 98. 9. 25). 더욱이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율이 큰 지체장애는 67.3%로 다른 장애(청각장애 14.5%, 시각장애 7.3%, 정신지체 7.3%, 언어장애 3.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http://www.mohw.go.kr>), 이들 대부분이 시설(24천명)보다는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1,028천명)가 많아 현대 가정은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놓여있다.

가정생활에 있어 가족의 건강은 주부의 가정역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요구요인이 되며(임혜경·

임정빈, 1995), 특히 주부 자신의 건강상태는 가정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두경자, 1993). 따라서 가정내의 장애 발생은 가족의 생활양식, 가치관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지체장애 주부에게 있어 주부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사노동은 전통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주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체장애 주부에게 있어서도 완전히 예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특성상 그 자체를 저장해 놓을 수 없는 보존 불가능성과 대체가능의 한계로 인해 매일 반복성을 띄고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지체장애 주부는 가사노동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대 가정은 핵가족화, 소가족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체장애 주부를 대신하여 가사노동을 원조할 수 있는 가족원이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 가족이 전적으로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인 가정봉사 서비스(home help service)이다. 이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 의해 처음 도입·실천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 가정에 필요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봉사 서비스 중에서 가사 서비스는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애는 계속 증가하고 주부에게 있어서 장애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물론 가사노동과 같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영향은 가족원의 성장 발달이나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한 가족원의 적절한 대응과 사회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주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장애 주부 역시 일반 주부와 같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지체장애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 주부의 가정내 가사노동의 분담, 가정기기의 활용, 그리고 주거조절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지체장애 주부의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태는 어떠하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체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시각은 손상(impairment)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체장애는 지체 부자유 상태 즉 신체적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지역별 장애인구는 군부(4.6%)가 대도시(1.8%) 및 기타도시(1.7%)에 비해 높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지역별로는 서울(108천명), 경기(107천명), 부산(44천명), 경북(43천명), 전남(41천명), 전북(40천명) 순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지체장애인 수는 1999년 8월 현재 28천명에 달한다(http://www.mohw.go.kr).

연령별 지체장애인 수는 20세 미만이 19천명, 30-39세 142천명, 40-59세 248천명, 60세 이상이 328천명으로(http://www.mohw.go.kr)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성별은 남자가 인구 천명당 15.74명으로 전체 지체장애인의 60%를 차지하며, 여자는 10.11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활동량과 영역이 넓은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학력은 대부분 낮은 편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60%, 중졸이 15.4%, 고등학교 이상이 7.6%이며(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회, 1999), 이들은 취업하지 않은 경우(68.2%)가 대부분이고, 취업한 경우(31.8%)라도 대다수가 농·어업(31.4%), 단순노무직(23.0%), 서비스·판매근로직(17.9%), 기능근로직(14.8%)에 종사한다(http://www.mohw.go.kr). 특히 주부는 18.6%만이 집에 머물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대다수의 주부가 신체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가사의 과중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에 의한 월평균 근로소득은 683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전우호, 1997)으로 취업장애인의 85.2%가 100만원 이하의 적은 소득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http://www.mohw.go.kr). 또한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장애인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결과, 스스로 생활형편이 '하'라고 응답한 이들은 53.2%(생활보호대상자 17.8% 포함)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계유지(33%), 자녀교육(16%), 취업(15.6%) 등이다(중앙일보, 1998. 10. 22). 더욱이 장애인의 16%만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며, 11%의 장애인만이 국민연금, 보훈연금, 자동차 보험 등의 급여를 받는다(전우호, 1997)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가정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 형태별로는 마비(45.4%), 관절운동장애(32.3%), 절단(13.9%), 변형(8.4%)의 순이며, 성별에 따라 남자는 마비(47.8%)가, 여자는 관절운동장애(44.4%)를 많이 가진다. 또한 Barthel Index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점수화한 결과, 경도 70.7%, 중등도 16.1%, 중도 13.1%(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전용호, 1997)로 경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64%)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로 인한 보호수발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95%)이 들고 있어(전용호, 1997)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5~39세 연령층의 경제 활동자를 대상으로 정부 혹은 민간기관으로부터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상담, 직업훈련, 치료, 검사, 보장구공급 등) 수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를 받았다'(7.0%), '현재 받고 있다'(6.4%)에 비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6.6%를 차지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아직 대부분의 지체장애인이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직업이 있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만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생활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수준이 아직 미비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도 한정되어 있다. 특히 지체장애 주부들이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생활의 실질적인 면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 주부는 "선·후천적인 원인으로 신체적 능력이 낮아서 가정생활을 전담하기가 곤란하므로 타인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지체장애 주부" 또는 "만성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주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사노동 대처방안

가사노동은 주로 20-50대 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일상적인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시장보기, 자녀 돌보기 등이 전체 가사노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과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이미숙, 1995). 또한 수행되는 과업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자의 건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 주부에게 있어 매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장애 주부가 가족원의 육구충족을 위해 적당한 수준의 가사노동을 유지하고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써 가사노동의 분담, 가정기기의 활용, 주거조절, 그리고 가정봉사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노동의 분담

가사노동의 분담이란 가사노동을 가족원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족원간의 분담을 통해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을 줄임으로써 주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체장애 주부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런 경우에 가족원의 가사노동 분담이나 외적 자원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편이나 자녀, 이웃, 사회공적 지원 체계, 그리고 고용된 가사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가족원이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체장애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움 받기 쉬운 것은 가정내 다른 인적자원인 남편과 자녀의 가사노동 분담이다.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문제점이 부부 및 가족전체의 협력으로 극복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1970년대에 행해진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하루 약 40분 정도였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로 나타나 70년대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조미환, 1996).

Geeken과 Gove(198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수입과 가사노동 참여사이에는 곡선관계가 있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는 중간 소득층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Abdel-Ghany와 Nickols(1983)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에 대

한 남편의 참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원의 분담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체장애 가정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로 주부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달리 남편과 자녀의 분담수준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정기기의 활용

가정기기는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가사노동을 절약하는데 기여하며, 가사노동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으로 힘든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 준다(조명희 외, 1997). 즉 가정기기의 활용은 청소기, 세탁기, 전기밥솥 등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지체장애 주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Deacon과 Firebaugh, Saink, Nickols와 Fax는 가정기기가 가사노동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사노동을 돕는 촉진 요소로 보았다(채옥희, 1991; 조명희 외, 1997에서 재인용). 반면 가정기기를 관리·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며, 과제수행의 빈번함으로 기대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사노동의 부담을 더해준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필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김성희 외, 1997). 이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행함에 있어 건강상의 장애를 느끼는 경우에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보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우므로(윤영희 외, 1997), 지체장애 주부의 건강상태는 가정기기의 활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채옥희(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월총소득이 가사노동 기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기기 구입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필요하고, 기기의 활용 면에서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가정기기의 활용은 가사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시켜 주고, 주부의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체장애 주부들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사노동 관련 주거조절

주거환경은 그 공간을 사용하고 거주하는 인간의 다양한 생활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거주자의 행동능력이 낮을수록 즉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지적으로 대처능력이 저하될수록 이러한 지원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이연숙 외, 1999).

Meek은 주거내부 시설면에 있어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부자유스럽고 많은 질병을 경험하므로 편리한 난방시설, 욕실 및 화장실 시설, 온수시설 등을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곽인숙, 1998에서 재인용). 즉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생활기간이 긴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생활의 중심이 되고 개인적 경험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이연숙 외,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집의 구조나 형태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주고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정해 주는 홈케어 서비스(home care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강수지, 1996). 지체장애 주부의 작업을 돕는 주거조절로는 휠체어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계단 옆의 경사로(ramp)나 핸드레일(hand rail), 욕실벽면의 보조봉 설치 그리고 통행로를 넓게 개조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Oppenheim, 1976).

한편 주거조절 실태에 있어 권오정(1997)의 노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욕실/부엌의 온수시설과 물건을 나르는 웨건의 사용은 높은 편이지만 선반 높이의 조절,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부엌 작업대의 높낮이 조절 등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선반 높이의 조절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노인과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주부 역시 주택의 구조나 규모, 시설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신체적 조건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저하로 인한 부족한 신체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조절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역시 저소득층의 지체장애 주부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가정봉사 서비스의 내용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현상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시중, 간호 등의 서비스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이 가정봉사 서비스이다.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해 Barker(1987)는 client가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상의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보통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가정 봉사원들이 미리 결정된 계획에 따라 client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Margret Dexter와 Wally Harbert(1983)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질병, 파로, 무능,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경우 산모, 노인 그리고 사회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범주(1992)는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해 요보호 계층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가정에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을 양육, 보호, 부양하거나 가사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기관에서 파견된 가정 봉사원(home-maker)을 통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회, 1999).

이를 종합해보면 가정봉사 서비스(homemaker service)는 가정 봉사원이 요보호자(장애인,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의 기능을 유지·보완·대체해주는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봉사 서비스는 1987년 한국노인 복지회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1999년 현재 가정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74개소에 이른다(조기동, 1999).

가정봉사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에서는 ① 가사서비스(household tasks; 일상적인 집안청소 수행, 식사준

비, 세탁, 쇼핑 등), ② 대인적 서비스(personal care; 목욕, 의복손질, 면도 및 이발, 대소변 보기 등), ③ 사회적 서비스(social care; 연금수급, 법규 및 규정 알려주기, 진료기관과 연결, 전화 걸어주기 등), ④ 역할 훈련 서비스(training role; 자아보호 능력의 유지 및 회복시키기 등) 등의 가사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회, 1997).

미국의 가정봉사 서비스는 ① 가사지원(household tasks), ② 대인적 보호(personal care), ③ 사회적 보호(social care), ④ 훈련적 역할(training role), ⑤ 주민의 참여능력 향상과 조직화의 촉진 등이며(김경희 외, 1992), 일본은 ① 신체의 간병에 관한 것(식사, 용변, 착·탈의, 목욕, 신체청결, 머리감기, 통원 등), ② 가사에 관한 것(조리, 의류의 세탁 및 관리, 주거 등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필수품의 구매,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등), ③ 상담·조언에 관한 것(생활, 신상, 간병에 관한 상담·조언, 주택개량에 대한 상담·조언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賀戶一郎 외, 1999).

한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가정봉사 서비스로는 ① 가사보조, ② 상담조언, ③ 교육훈련·치료 등이다(김범주, 199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봉사 서비스의 내용 중 가사보조 영역(식사준비 및 취사, 청소, 세탁, 장보기 등)에 관한 서비스만을 다루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1999년 10월 1일에서 28일까지 한달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주부를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관찰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주부 6사례, 남편 4사례), 50대(주부 1사례, 남편 1사례), 60대(주부 2사례, 남편 3사례), 80대(주부 1사례)로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으며, 다른 두 사례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무학(주부 7사례, 남편 3사례), 초등졸(주부 1사례, 남편 2사례), 중졸(주부 1사례, 남편 2사례), 고졸(주부 1사례, 남편 1사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 례	연 령		학 력		직 업		월평균 소득	자녀수	장애원인
	주부	남편	주부	남편	주부	남편			
1	40	42	고졸	고졸	주부	장사	80만원	2녀	교통사고
2	40	44	무학	무학	농업	농업	70만원	2남2녀	관절염 류머티스
3	43	45	무학	초등졸	공공 근로사업	1일 노무자	80만원	1남1녀	소아마비
4	42	44	중졸	중졸	주부	무직	60만원	2녀	건강약화
5	47		초등졸		농업		40만원	2남2녀	허리디스크
6	48	52	무학	무학	주부	서비스	50만원	1녀	교통사고
7	58	66	무학	초등졸	주부	무직	30만원	1남	관절염
8	60	65	무학	중졸	주부	농업	100만원	2남2녀	혈압·중풍
9	65	66	무학	무학	주부	1일 노무자	30만원	1남	관절염
10	84		무학		소일		20만원	없음	노령

례)로 대체로 고졸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직업에 있어 주부의 대부분은 전업주부(6사례)이거나 간혹 농업(2사례), 임시직(1사례) 및 공공근로사업(1사례)을, 남편은 무직(2사례)이거나 농업(2사례), 1일 노무자(2사례), 서비스직(1사례), 그리고 자영업(1사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가 5사례, 60만원-100만원 이하가 5사례로 나타나 지체장애 주부가정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2명 이하가 7사례, 4명이 3사례로 대체로 2명 이하의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원인으로는 선천적 장애가 1사례, 후천적 장애가 9사례로 주로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40대의 전업주부로서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따라서 지체장애 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나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사노동의 분담

지체장애 가정의 가사노동 분담은 주로 남편과 자녀(사례 1, 2, 3, 4, 5, 6, 8, 9)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적 성역할 의식과 기술부족으로 인해 남편과 자녀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노동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인의 취업과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참여가 저조하고 부인이 과중한 가사역할 부담을 진다는 대부분의 연구(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 외, 1996)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주부 : “남편이 한다고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사례 1, 2, 8, 9〉.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일하는 것 보면 어설피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그래〈사례 1, 2〉. 나는 매일 매일 잘 아프고 애 아빠도 건강하지 않으니 까 하는 수 없잖아 애들이 많이 하지〈사례 4, 6〉.”

〈사례 3〉은 가정내 다른 조력자로서 친정 어머니에 의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확대가족의 가사분담이 높게 나타난 이미선 외(199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시·친정 어머니가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인적자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례 7, 10〉은 이웃의 도움을, 〈사례 1, 6, 7〉는 가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웃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분담영역을 살펴보면, 자녀〈사례 4, 5, 6〉와 남편〈사례 1, 8〉은 식사준비와 설거지, 세탁, 집안청소 등의 의식주 영역에 적지만 고르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정내 역할긴장이 많을수록 가족원의 분담이 높게 나타난 이미선 외(1997)의 연구와 자녀의 가사분담은 기기의 사용이 높은 전문직 주부의 가정보다는 비전문직 주부의 가정에서 높다는 이승미(1989)의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남편 : “시간이 되는데로 하거나 누군가 먼저 본 사람이 하게 되지만 애들이나 나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사례 1, 8〉. 밥이야 배고프면 있는 것 이것저것 차려서 그냥 먹고〈사례 9〉. 아침에 일어나면 쓸고 닦는 거야 하겠는데 밥하고 설거지 하고... 빨래는 못하겠더라구〈사례 2, 3〉.”

〈사례 9〉에서 남편은 세탁과 같은 의생활 영역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사례 2, 3〉은 방청소와 마당쓸기 등의 주생활 영역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에 있어 남편의 주참여 영역이 주생활 관련(55%)에 머물고 있다고 한 이기영·이승미(1994)의 연구와 남성들이 전통적 여성의 일로 여기는 요리, 설거지, 청소, 세탁 등에는 낮게 참여한다고 한 연구(Lee Blair & Lichter, 1991; 이연숙 외, 1991; 송영숙, 199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편과 자녀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정도가 낮아 지체장애 주부의 가사분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체장애 가정에 있어 가사노동의 분담은 필수 사항일 뿐 아니라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의 완화와 가족의 복지감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2. 가정기기의 활용

가정기기의 보유면을 살펴보면, 〈사례 10〉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체장애 주부는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가정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를 보유한다는 조명희 외(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전기프라이팬〈사례 1, 2, 7, 8〉, 전자레인지〈사례 6, 8〉, 커피포트〈사례 8〉, 믹서〈사례 4, 8〉, 청소기〈사례 6, 8〉, 다리미〈사례 3, 8〉는 적은 수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있어 시장재의 비용에 대한 평가가 사회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이기영 외(1999)의 연구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조정은 외, 1991), 월총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채옥희(1995)의 연구가 뒷받침해 준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지체장애 주부에게 있어 가정기기의 활용은 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 있다면 겨울에는 옷도 두껍고 빨래하기 힘드니까 세탁기나 한대 있으면 좋겠어. 있는 것도 고장나서 못쓰고, 옛날 것이라 반자동이야〈사례 3〉. 건강할 때는 새로 나오고 좋다 싶으면 그냥 샀는데 요즘은 있는 것도 별로 쓸 일이 없어〈사례 8〉. 가끔 청소하거나 설거지가 밀린 것을 보면 청소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게 있었으면 해〈사례 1, 2, 6, 7〉.”

가정기기의 활용면을 살펴보면,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의 매일의 식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전체 사례에서 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례 3, 10>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2-3일 또는 4-5일 한 번 정도 세탁기를 사용해서 세탁하거나 가벼운 손빨래를 하였다. 그러나 믹서<사례 4, 8>, 다리미<사례3, 8>,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사례 8>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전기프라이팬의 경우 <사례 2, 6, 7, 8>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한 가정기기 중 냉장고(90.9%), 가스레인지(84.6%), 세탁기(70.6%) 등은 도움이 되지만, 전기프라이팬, 재봉틀은 소유하더라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 윤소영(1990)의 연구와 전기 보온밥솥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채정숙 외(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전기밥솥이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필수적인 가정기기는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전기프라이팬, 믹서, 다리미, 커피포트, 전자레인지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기기의 보유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장애 주부의 에너지 절감 및 피로감 감소에 기대만큼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정기기의 활용이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지체장애 주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기기, 특히 청소기와 식기세척기 등의 보급과 함께 지역사회 내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가사노동 관련 주거조절

조사 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임대아파트<사례6>, 양옥<사례 1, 4>, 한옥<사례 5, 10>, 개량한옥<사례 2, 3, 7, 8, 9>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사노동 관련 주거조절 실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불편한 것... 대부분이 다 그래.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부엌이 너무나 낮아서 오르내리기 힘들어<사례 3, 5, 10>. 비·눈오는 날에는 부엌바닥이 흙이라 미끄럽고...<사례 5, 10>. 가

끔 바닥에 물이라도 있으면 다리가 미끄러워서 몇 번씩 넘어지려고 해<사례 2, 4>. 집이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려면 주방이 너무 좁고, 물 한잔을 받으려면 몸을 많이 구부려야 해서 불편해<사례 1, 6>.”

<사례 1>은 주방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선반의 높이를 조절하고, <사례 6, 8>은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판을, <사례 8>은 싱크대 앞에 고무판을 놓아 미끄러움을 방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래의 주거조절에서는 ‘부엌 문턱의 높낮이 조절’ <사례 1, 3, 5, 6, 10>,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사례 2, 4, 7>, ‘선반의 높이조절’ <사례 6>, ‘보조봉 설치’ <사례 4, 8>, ‘세탁용 세면대 설치’ <사례 9>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엌 문턱의 높낮이 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가옥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엌내부만을 입식으로 고친 결과라고 여겨지며, ‘선반의 높이조절’, ‘보조봉의 설치’ 그리고 ‘세탁용 세면대의 설치’ 등은 지체장애 주부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영 외(1996)의 연구에서는 부엌개조에 대한 희망이 적었으며, 또 소득수준이 60만원 이상, 중졸이상의 노인들에게서만 부엌개조의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주거조절은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지체장애 가정에게 있어 주거조절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내부의 설비수준 문제는 저하된 신체능력에 의한 것이며 주거환경은 이러한 신체적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이 되어야 한다(곽인숙, 1998).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지체장애 주부를 위한 가사노동 관련 주거조절 실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 주부들이 가사노동 관련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내 부엌 문턱의 높낮이 조절이나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4. 가정봉사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한 인식여부를 살펴보면, <사례 1, 2, 3, 4, 5, 6, 7>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사례 8, 9, 10>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17.6%만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차정희(1992)의 연구로 볼 때 연령이 많은 주부에게 있어 가정봉사 서비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실태에 있어 <사례 1, 6, 7>만이 자원봉사자에 의한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의 도움 역시 그 횟수에 있어 실제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역사회내에 위치한 복지기관을 위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봉사인력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가정봉사 서비스요. 자원 봉사자들이 가정에 방문하는 것 말이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라면 서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래<사례 6, 7>.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온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사례 1>. 가사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기는 했어도 누가 우리가 지 도와주나. 맨날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나 그렇지<사례 2, 3, 5>.”

“그런게 있다면 이용하지<사례 2, 8, 9, 10>. 남편이나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애들이 클수록 지 네들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는데 매번 집안 일 때문에 부담만 주지는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사례 2, 6>. 그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차라리 우리끼리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사례 1, 3, 4, 5>.”

한편 가정봉사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지체장애 주부들의 태도는 “이용한다<사례 2, 6, 7, 8, 9, 10>”와 “이용하지 않는다<사례 1, 3, 4, 5>”가 비슷하게 나

타났지만, 젊은 연령층보다 고령일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노인들의 50.0%가 이용의사를 보이는 반면 48.6%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차정희(1992)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지체장애 주부들의 대부분은 가정봉사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체장애 주부들이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과 가족원의 적은 가사분담에도 불구하고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가 적은 것은 가정봉사 서비스의 일회성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 주부의 가사노동 즉 청소, 세탁, 구매, 식사준비 및 취사 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사보조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 주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수행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원의 가사노동 분담, 가정기기의 활용, 주거조절, 그리고 가정봉사 서비스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체장애 주부가 가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 주부들의 가사노동상의 어려움은 가정생활의 필수요소인 식사준비와 설거지, 세탁 및 집안청소 등이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돕고는 있으나 가사기술 능력의 부족과 참여의식의 결여로 지체장애 주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자들에게도 가사노동 교육의 기회확대와 가족원의 보다 적극적인 가사노동의 참여가 요구된다.

2. 지체장애 주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가정기기는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있고, 활용도 역시 높다. 그러나 세탁기나 청소기, 식기세척기의 보유율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세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룬드로 메트(laundromats)와 같은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3. 주거조절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끄럼방지재의 사용이나 선반의 높이조절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거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며, 저소득층 지체장애 주부를 위해 주거조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봉사 서비스의 보급이 요구된다. 한편 더 많은 지체장애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인숙(1998). 노인이 인지하는 주거문제와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95-109.
- 두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18-234.
-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9.
- 윤영희·박미석(1997).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본 가사노동 사회화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창간호*, 101-116.
- 이기영·구혜령(1999).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69-177.
- 이기영·송혜림·이승미·민순선·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1.
- 이기영·이승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1.
- 이연숙·이숙영·박정아·변혜령(1999). 한국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76-84.
- 임혜경·임정빈(1995). 취업주부의 직업 - 가정 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 만족도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85-99.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회(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유봉출판사.
- 전용호(1997). *장애인복지발달*. 서울: 학문사.
- 조기동(1999). 노후생활과 사회적 보호 - 유료가정봉사 사업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준비교육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30-35.
- 조명희·조영희·심영·김대년(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분석 및 개선방안 -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차정희(1992). *재가복지 서비스에 관한 노인의 욕구 조사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채옥희(1995). 확대기 주부의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83-94.
-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1995). *장애인실태조사*.
- 賀戸一郎·井村圭壯 편저; 성명옥 역(1999). *노인복지입문*. 서울: 대학출판사.
- Adbel-Ghany, M. & Nichols, S.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59-167.

- Geeken, M. & Gove, W.R.(1983). *At home and at work: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Irene, Oppenheim(1976). *Manage of the modern home*. 2nd, New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294-320.
- Lee, B.S. & Lichter, D.(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Margret Dexter and Wally Harbert(1983). *The Home Help Service*. The Chaucer Press, Great Britain.
- Robert L., Barker(1987). *Social work Dictionary*.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Inc.
- 중앙일보(1998). 10. 22.
- 한국경제신문(1998). 9. 25. : 1999. 4. 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